

이머징 이슈와 성숙사회의 징후

박성원, Ph.D.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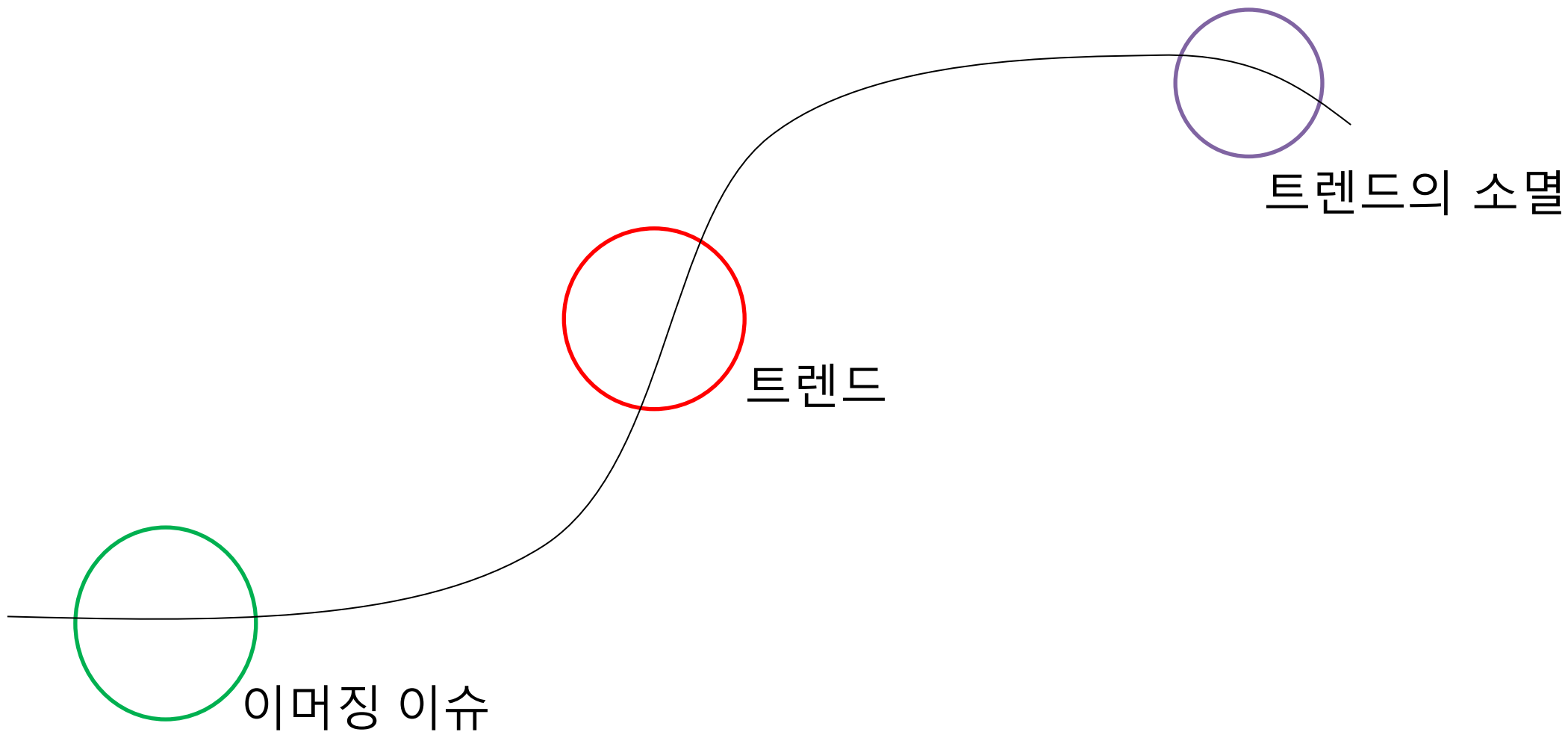
2022년3월17일 고려대 도시미래센터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2022년 주목되는 이머징 이슈

이머징 이슈 탄생에서 소멸까지



이머징 이슈 연구의 사회적 의미

이머징 이슈의 정의

-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는 장차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급효과를 일으킬 이슈
- 이런 이슈들은 5~10년 후 지배적 트렌드로 성장하면서 사회 변화를 일으킴
- 과학기술의 발견, 신흥종교의 등장, 새로운 바이러스의 확산, 제도와 규범의 변화, 국가간 경쟁체제 균열 등 (박성원, 2021a)

이머징 이슈 연구의 가정

- 미래는 과거, 현재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가정함 (미래의 의미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시점)
- 달라지는 양태는 표면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 구조적 변화
- 질적/구조적 변화는 과거의 누적된 갈등, 대립, 고통이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 환경, 경제, 정치, 과학기술적 조건과 결합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

이머징 이슈 연구의 정책적 의미

문헌에서 발견되는 당대의 이머징 이슈 사례

- 1970년대 에너지의 무기화(Oil shock), 탈산업사회, 인터넷 등장
- 1980년대 환경오염, 고령화(선진국을 중심으로 문제화), 성차별
- 1990년대 세계화와 가족의 해체,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
- 2000년대 베이비 부머 은퇴와 연금, 사이버 불링, 감정노동의 번아웃
- 2010년대 기후변화와 해양생태계 파괴의 급속한 진전

이머징 이슈의 정책적 효과

- 다양한 사회변동을 이해하는 관점의 전환을 제시
- 관점의 전환에 실패하면, 변화에 역공을 당함
- 변화를 보는 관점의 전환으로 전략/정책의 포트폴리오 재구성(우선순위의 재조정)
(예) 1980년대 이한빈 박사의 슬기도시 미래
- 국민의 선호미래상 실현에 필요한 환경 조건의 새로운 이해와 대안 마련

국회미래연구원의 이머징 이슈 연구

이머징 키워드에서 이머징 이슈로 전환되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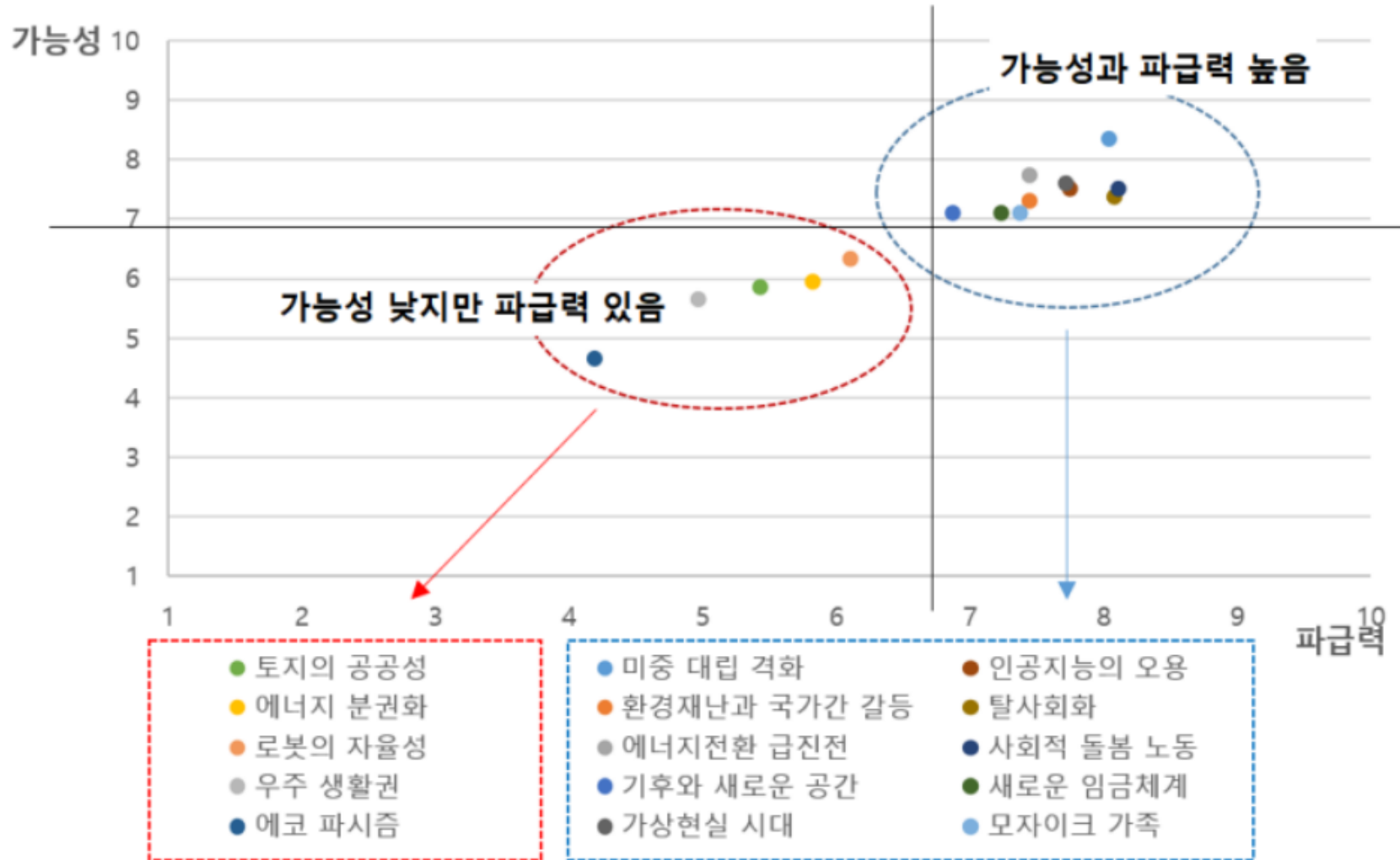


국회미래연구원의 이머징 이슈 연구 과정

- 연구팀1: 최근 20년 WoS DB에서 'unprecedented'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헌 5만 건 중 신규성, 확장성, 파급효과의 3가지 기준을 통과한 키워드 도출)
- 연구팀2: 1991년부터 2020년까지 SCOPUS DB의 문헌 중 경제 및 사회과학, 컴퓨터공학, 인문과 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해 향후 5년 내 폭발적으로 등장할 키워드 도출)
- 이 키워드와 맥락적 정보(연관 키워드, 키워드가 포함된 문단, 저널 이름 등)를 7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에게 제공하고, 키워드가 내포하는 이머징 이슈를 제기해줄 것을 요청
- 이와 함께 전문가들이 키워드 고려 없이 자신의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를 제기하도록 요청

2022년 주목해야 할 15개 이머징 이슈

가능성과 파급력 고려한 15개 이머징 이슈의 분포도



2022년 주목해야 할 15개 이머징 이슈

◆ 가능성과 파급력 모두 높은 이머징 이슈 10선

● 미중 대립의 새로운 국면 (가능성 8, 파급력 8.3)

- 경제와 안보를 엮어 미국이 반도체, 희토류, 의약품, 배터리 등에서 동맹국의 연합을 강조
-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보호주의의 진영화' 가속
- 미국+동맹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 등장으로 기업들의 가치사슬 전략 변경(김양희, 2021)
- 이런 양극화된 경쟁에서 국제사회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고 노력



● 환경 재난의 빈발, 국가간 갈등 확대 (가능성 7.5, 파급력 7.3)

-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던 환경 재난이 국가간 갈등의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
- 중국의 황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이 대표적 사례
- 온실가스 배출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에 대한 국제적 압력도 증가
- 환경문제는 노동, 복지, 주거와 연계되어 환경 재난의 책임을 두고 국가간 갈등 심화(이진우, 2012; 임종한, 2019)



2022년 주목해야 할 15개 이머징 이슈

◆ 가능성과 파급력 모두 높은 이머징 이슈 10선

● 에너지 전환의 급진전 (가능성 7.4, 파급력 7.7)

- 교통과 물류 분야에서 에너지 전환이 급속히 전개될 것
- 독일 2018년 세계 최초 수소열차 상용화, 유럽 2040년까지 경유 열차 퇴출
- 중국 수소 하이브리드 트램 출시, 프랑스 수소 열차 실험 중
- 풍력 날개,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수소탱크 등에서 폐기물 증가는 우려(조지혜 외, 2018)



● 기후위기 대응, 새로운 공간의 등장 (가능성 6.9, 파급력 7.1)

- 폭염, 폭우, 폭풍, 산불에 대비하는 새로운 건축물, 안전가옥 등장
- 배수시설 및 재난 대비 인프라 확충
- 탈탄소화에 전기차, 수소차 운행 기반 확대, 철도운송체계 개편
- 재난의 일상화를 대비하는 도시재생법안 마련으로 도시의 구조 변화 예상(1)



2022년 주목해야 할 15개 이머징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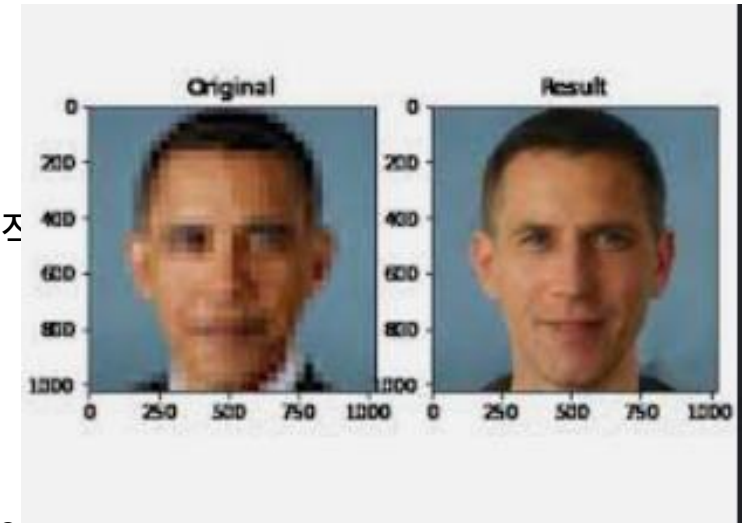
◆ 가능성과 파급력 모두 높은 이머징 이슈 10선

● 가상현실의 급진전 (가능성 7.7, 파급력 7.6)

- 2026년 세계 35억명 5G 가입 전망, 인공위성을 통한 6G 시대 예고
-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두 세계를 연결하는 메타버스 하이브리드 界 등장
-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게임 '로블록스', 미국 16세 미만 청소년 55% 가입
- 가상세계에서 청소년들의 명품 체험 증가, 억대를 벌어들이는 초등학생 게임 개발자 등장
- 개인 데이터(소비, 금융, 의료)의 통제권과 활용 주권 논란 예상

● 인공지능의 오용, 알고리즘의 편향성 (가능성 7.6, 파급력 7.5)

- AI기술로 개인의 얼굴 조작, 합성 포르노 확산, 유력 정치인의 메시지도 조작
- 모든 인간 활동이 데이터로 축적, 인공지능의 분석 자료가 됨
- 이런 분석을 통한 지능형 AI의 의사결정에 인간의 신뢰 부여
- AI 의견에 의존하면서 기존 미디어의 공론장 역할 축소, 타자 혐오도 증가
- 알고리즘 편향은 기존 사회적 편향을 반영, 사회비판과 실천 없이는 극복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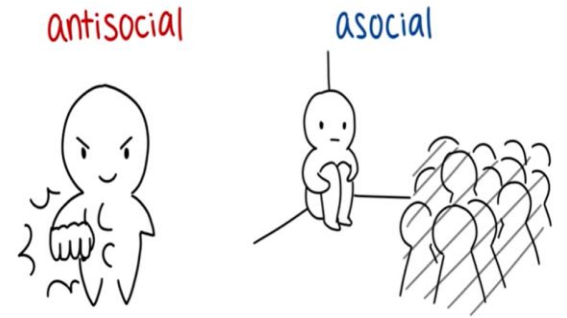


2022년 주목해야 할 15개 이머징 이슈

◆ 가능성과 파급력 모두 높은 이머징 이슈 10선

● 탈사회화 (가능성 8.1, 파급력 7.4)

- 1인가구 증가, 전일제 노동 감소, 플랫폼 노동 증가, 재택과 원격근무 확대(홍찬숙, 2021)
- 개별화된 제품과 소비 확산으로 즉시성(즉각 욕구해결)과 개인주의 강화
- 이런 경향은 개인의 탈사회화이자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소를 의미
- 사회적 관계가 약화되어 돌봄의 양극화도 초래



● 사회적 돌봄 노동의 증가 (가능성 8.1, 파급력 7.5)

- 초고령 노인, 감염병 환자, 비대면 유아/아동 돌봄 등의 수요 증가
- AI 돌봄 서비스도 등장해 돌봄 노동의 변화 가속
- 개인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국가 및 공공의 역할 부상
- 정신건강 악화로 영국과 일본은 고독부 장관(Ministry of Loneliness) 임명



2022년 주목해야 할 15개 이머징 이슈

◆ 가능성과 파급력 모두 높은 이머징 이슈 10선

● 새로운 임금체계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가능성 7.2, 파급력 7.1)

- 정년 연장, 소득 단절, 노동력 부족 등이 맞물려 임금체계 대변환 예고
- 정년 이후 노령 연금 수급시기까지 임금 단절
- 청년인구는 2025년부터 2035년까지 가장 가파르게 감소 (청년 노동자 급감)
-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연금 수령자는 늘고 불입자는 급감



● 모자이크 가족의 확산 (가능성 7.4, 파급력 7.1)

- 1인 가구(고령층 1인가구), 탈북민, 동성가족, 다문화가족, 혼인률과 출산률 급감
- 젠더 이슈 지속, 반려로봇, 반려동물 등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 가족 해체 이후 자녀 양육에 대한 회피와 여성의 빈곤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공교육 및 복지제도가 다양성, 포용성, 이질성, 연대, 돌봄의 가치를 중시



2022년 주목해야 할 15개 이머징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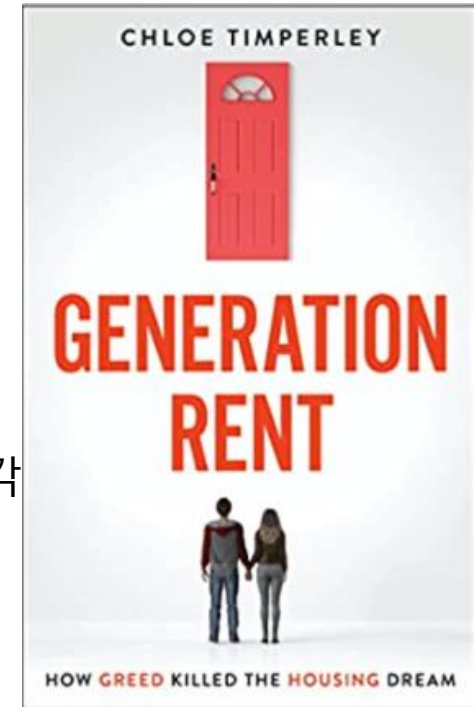
◆ 가능성은 낮지만 파급력 있는 이머징 이슈 5선

● 토지의 공공성 부각 (가능성 5.4, 파급력 5.9)

- 인구소멸 지역의 증가로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토지 증가
- 농산림/하천/갯벌 등 지켜야 할 토지의 공공성이 생태순환시스템의 관점에서 부각
- 토지 가격 증가로 빈부격차 심화도 토지의 공공성 논의에 한몫
- 토지 형질 변경과 토지의 공공성 유지 방법을 두고 사회적 갈등 발생

● 에너지 자립과 분권화 결합 (가능성 5.8, 파급력 6)

- 에너지 자립, 자원 순환 등이 추구하는 분산화는 정치적으로 자치분권화와 결합
- 수익성이 낮지만 필요한 산업에서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례 증가
- 사용하지 않은 건물, 주차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공공 운영 등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의 흐름은 도시의 주차장과 도로 축소 야기



2022년 주목해야 할 15개 이머징 이슈

◆ 가능성은 낮지만 파급력 있는 이머징 이슈 5선

● 로봇의 자율성 증대와 사회적 합의 (가능성 6.1, 파급력 6.3)

- 인간형 로봇, 고령자를 돕는 로봇, 군사용 로봇, 우주개발에 투입되는 로봇 등
-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하면 AI도 편견에 쌓여 올바른 의사결정에 어려움
- 규칙 기반 방식이 아닌 경우, 임의의 상황에서 AI의 예측 불가능한 결과 예상
- 로봇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면서 로봇의 자율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우주 생활권 진입 (가능성 5, 파급력 5.7)

- 로켓 기술의 비약적 발전, 우주 진출의 장애물 감소, 우주를 넘나드는 초고속 운송수
- 중국 독자적 우주정거장 구축(22년), 미국 아르테미스 달 상주 프로젝트(28년)
- 우주를 인류의 생활권으로 재인식, 이에 우주 지정학도 등장
- 우주쓰레기 증가와 우주자원 채굴 경쟁 본격화 전망



2022년 주목해야 할 15개 이머징 이슈

◆ 가능성은 낮지만 파급력 있는 이머징 이슈 5선

● 에코 파시즘 (가능성 4.2, 파급력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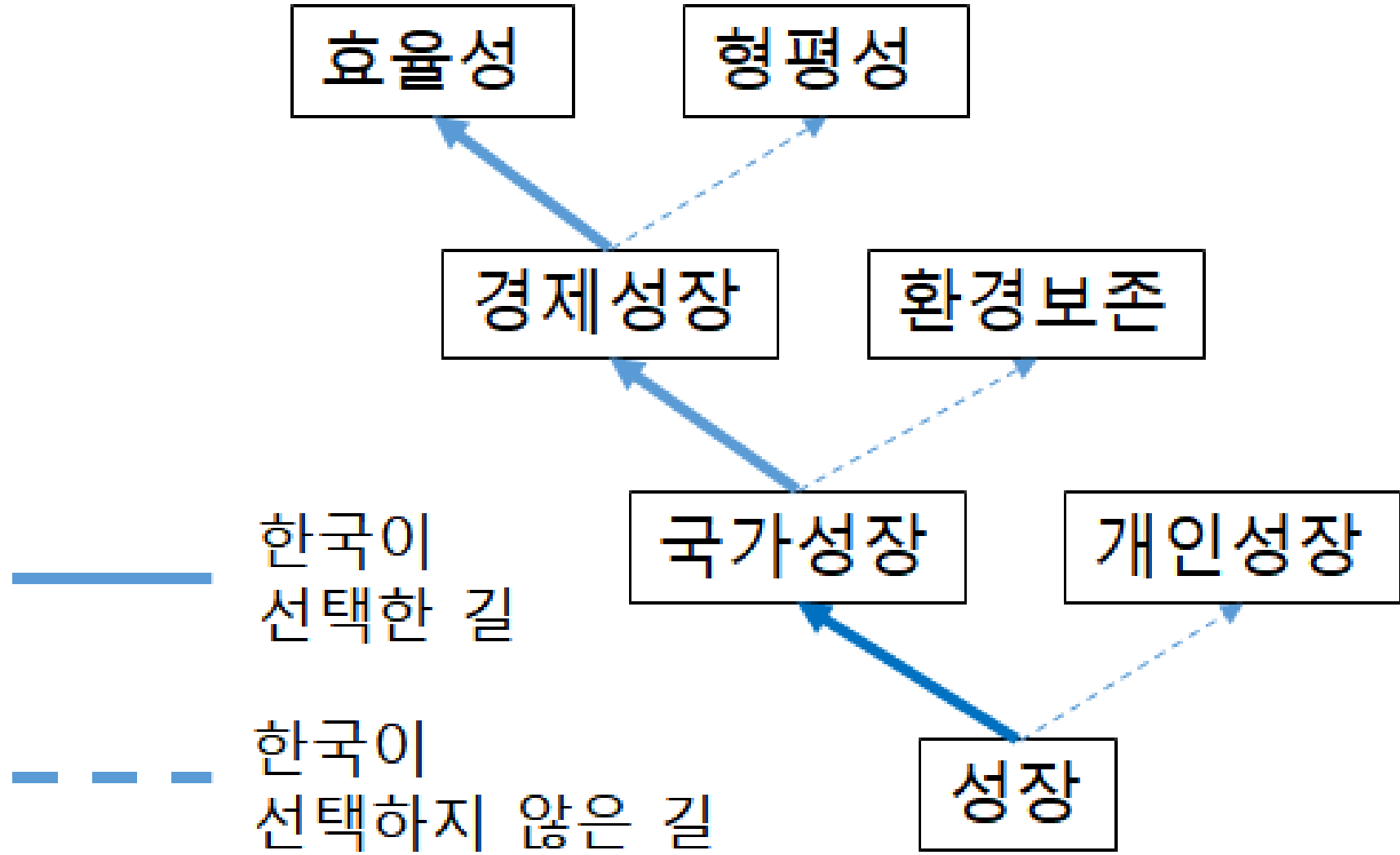
- 에너지 전환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
- 탄소 저감이나 기후위기 극복이 어렵게 되면 극단적 사상인 '에코 파시즘' 부상
- 에코 파시즘은 생태계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극단주의의 일종
- 극단적 동물권 옹호론자를 중심으로 인간에 대한 혐오의 징후가 보임
- 에코 파시즘이 자본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대체한다면 21세기 주요 사상으로 등장



성숙사회 징후로서 이머징 이슈

새로운 비전의 요청

- 국회미래연구원은 국민이 원하는 미래사회를 파악하고자 3,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 조사와 20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형 공론조사를 실시('21년 9월)
-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누적된 갈등, 다가올 미래 의제를 바탕으로 13개 분야 설문을 구성하여 국민의 의견을 파악함
- 13개 설문 중 다문화, 다원적 가치, 다당제 논의 등에서 국민의 의견이 팽팽해 이를 숙의토론의 주제로 정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집함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최종 선호하는 미래사회를 물어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국민이 원하는 미래를 밝히고자 함



효율성에 기반한 능력주의는 개인들의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매우 협소하게 결과만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보상을 논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 (우명숙, 남은영, 2021)

효율성 형평성

경제성장 환경보존

국가성장 개인성장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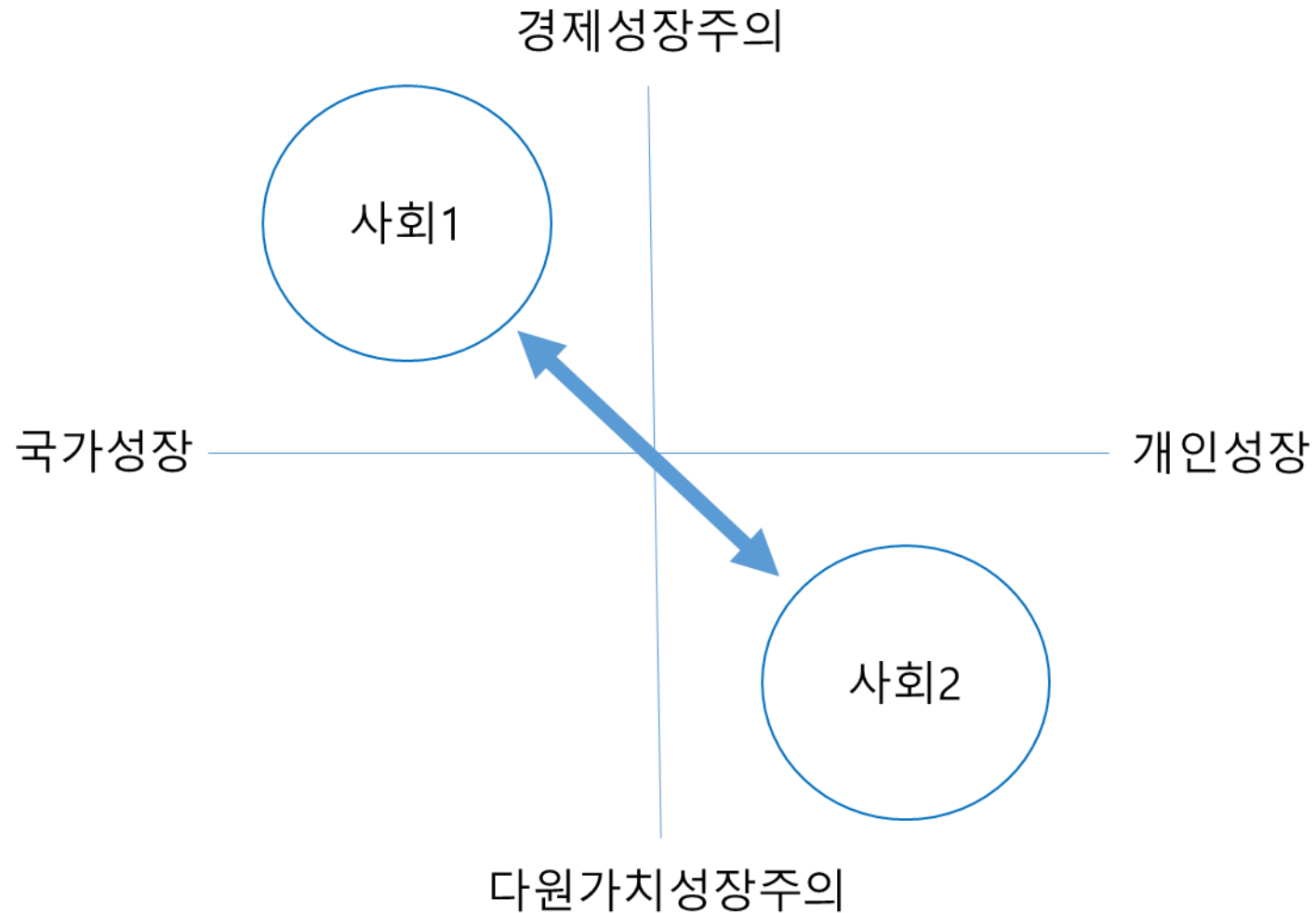
경제적 가치와 사회/환경적 가치의 충돌 가능성이 클 듯 (김석호 외, 2021)

한국이 선택한 길

한국이 선택하지 않은 길

소득이 적고 출세하지 못하더라도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45.3%), 다소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싶다(28.5%) (한국행정학회, 2021)

새로운 전환에 대한 국민의 요구



| 분야 | 지향해야 할 방향 | 숙의토론 전후 선호 비율 | | 선호 이유 |
|--------------------|-------------|------------------|-------|---|
| | | 전 | 후 | |
| 다문화 갈등 | 다문화 포용 지향 | 50.1% | 6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숙한 국가로서 이민자들을 차별없이 대우 · 고유한 삶의 방식 등 문화적 차이를 그대로 인정 · 다문화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 경제 가치와 다원 가치 대립 | 다원가치 지향 | 55.6% | 7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의 불균형, 환경적 파괴의 심각 · 사회적, 환경적 가치는 미래세대를 위한 책무 · 사회적 신뢰 구축과 갈등 해소가 더 중요해짐 |
| 다당제와 양당제 | 다당제 민주주의 지향 | 52.7% | 63.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당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현 정치체제 실망 · 사회 다양한 의견들이 대변 되어야 함 · 다양한 비례대표가 다양한 발전을 일궈내야 함 |

숙의토론 결과(20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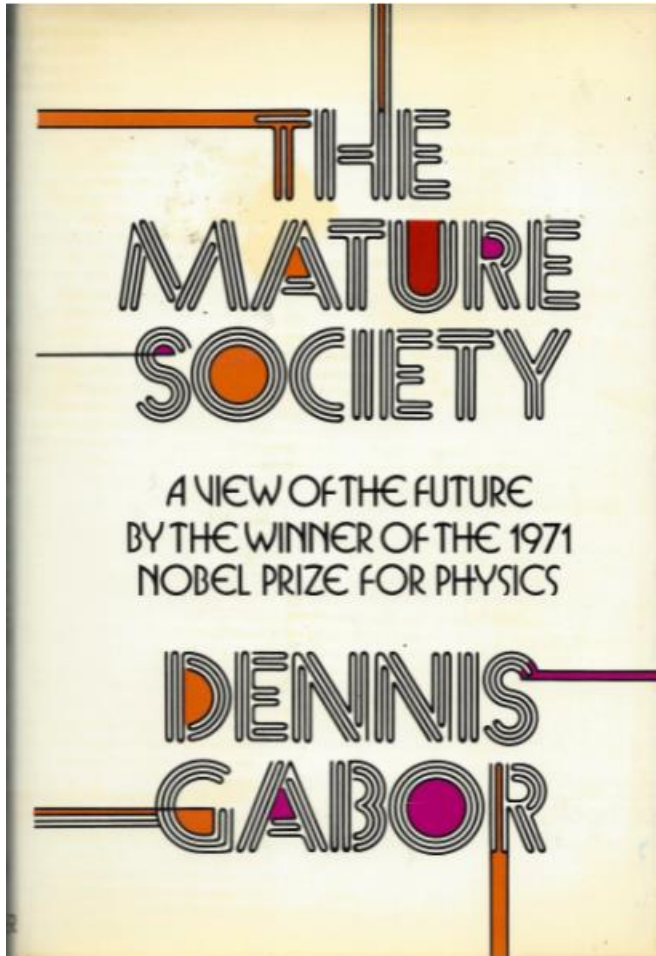
숙의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

“전국에 웬만한 땅 파보면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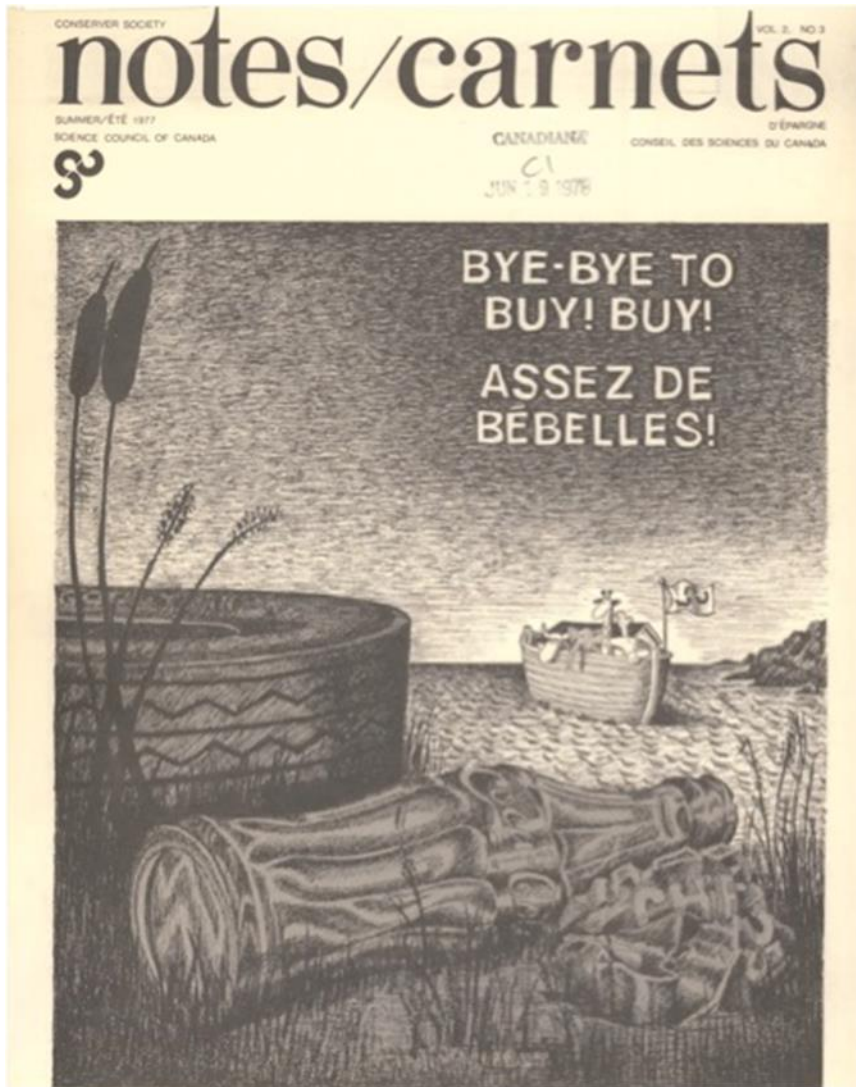
“한 방향으로만 가는 사회에서 끝이 없는 경쟁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경제성장을 위해 사람을 기계 취급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

| | |
|--------------|-----------------------------|
| 비전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 |
| 지향 가치 | 1. 국가 주도에서 자율과 분권으로 발전하는 사회 |
| | 2. 경제성장 중심에서 다원 가치 중심 |
| | 3.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따뜻한 공동체 |



“성장사회가 잃어버린
개인의 행복 능력,
놀이와 여가, 다원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성숙사회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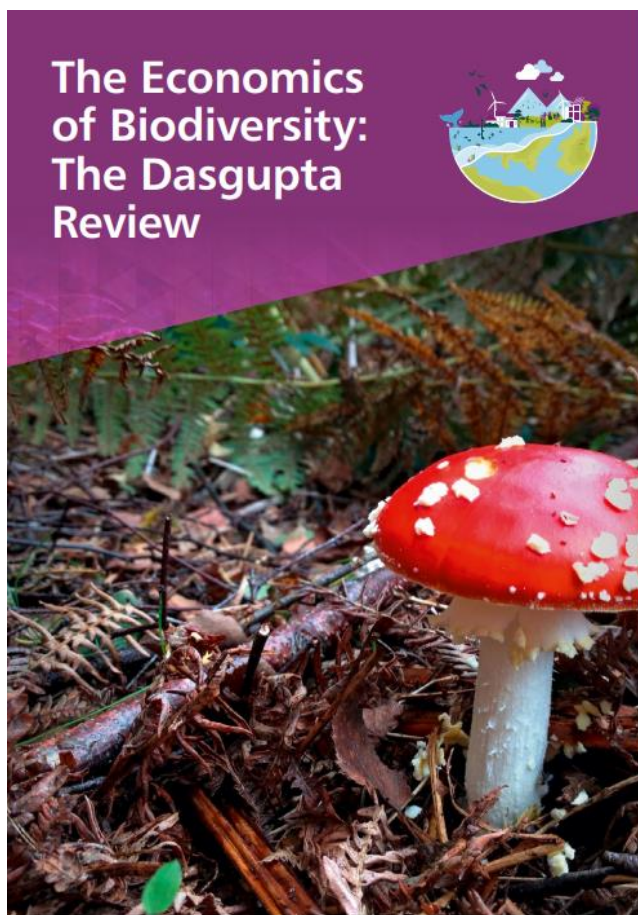
캐나다 Conserver Society Project (1973-1978)

- 캐나다 과학위원회와
- GAMMA(맥길대학+몬트리올대학) 협업
- From Consumer Society to Conserver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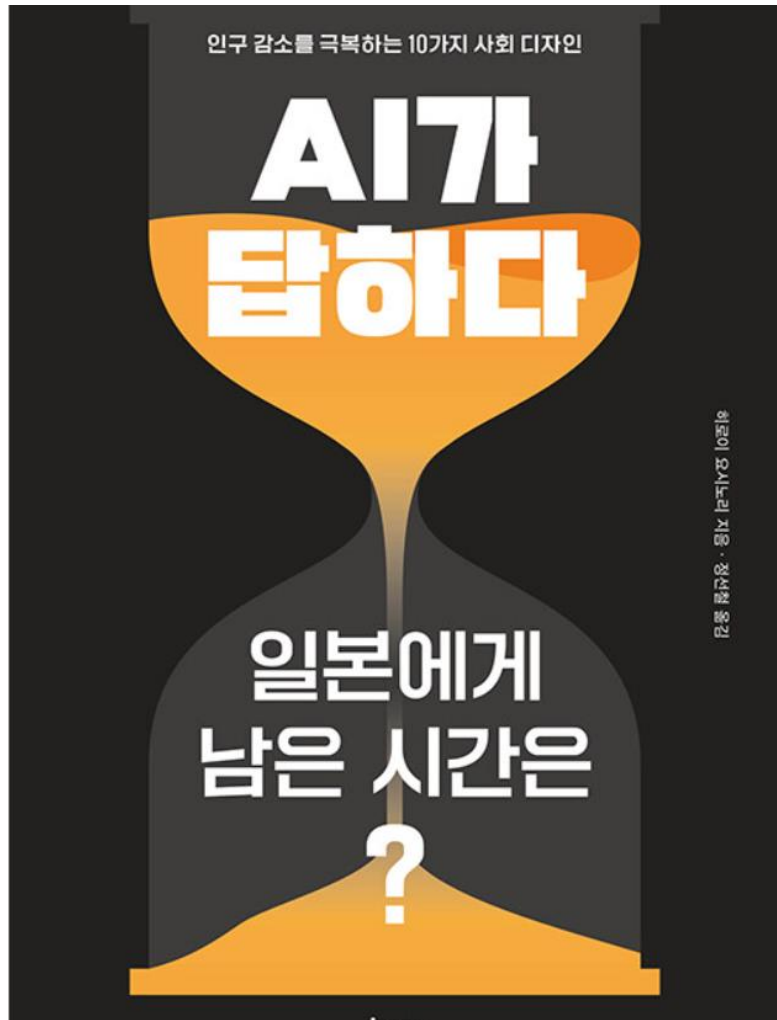
Consumer & Conserver Society 유형

| 노동/생산 자원 | Do More | Do Less | Do the Same |
|-------------|--|--|--|
| With More | (Do More with More) 지속적 경제 성장 비효율적 자원 소비 | (Do Less with More) 소비와 생산의 진작 낭비 사회 | 왼쪽 사회와 비슷 |
| With Less | (Do More with Less) 성장+보존 지속가능성장 | (Do Less with Less) "작은 것이 아름답다" | (Do the same with Less) 안정 보존 사회(제로 성장) 성장의 한계 내재화 |

Towards a Mature and Sustainable Society
International Symposium on Sustainability Science
7 January 2013
United Nations University



“자연 자본과 개인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는 성장”
(Partha Dasgup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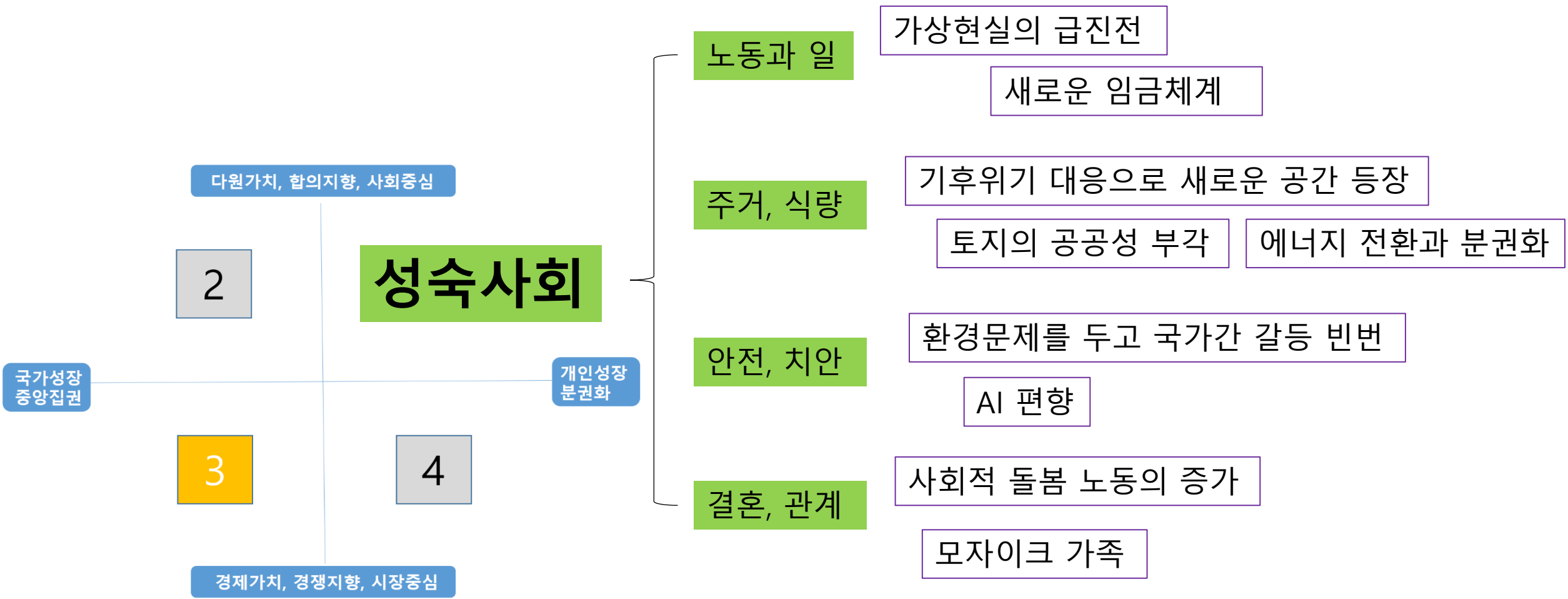


“일본이 지속가능하려면
도시집중에서 지역분산형으로
전환 필요. 사람과 물건, 돈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분산형
사회시스템, 원격근무 등이
성숙사회를 실현하는데 결정적”

교토대 마음의 미래센터 요시노리 히로이 교수

“일본에서는 성숙사회니 축소균형사회니 하는 말을 관료들까지 합니다. 영성적으로 죽은 인간은 자연을 보고도 감동할 줄 모르고, 꽃을 보고도 아름다움을 모르며, 사람의 우정을 높이 평가할 줄 모르고, 물질 생활만 찬양합니다. 그런 천박함이 혐오스러워요.”





[참고문헌]

- 김양희. (2021.11.7). 신뢰가치사슬의 성공조건. 서울신문
- 박성원. (2021a). 이머징 이슈 연구와 세계 동향. Futures Brief 1호.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2021b). 2022년 주목할 15개 이머징 이슈. Futures Brief 4호.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외. (2021). 미래정책과 국민의 선호미래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민보경 외. (2020).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이진우. (2012). 국경 없는 반도체 산업에 의한 직업병과 환경파괴. 사회운동, 107호
- 임종한. (2019.6.3). 환경불평등, 우리시대의 시급한 환경 과제. 복지동향. 참여연대
- 조지혜, 서양원, 김유선. (2018).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 (2020).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학회. (2021).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대한민국 미래100년 특별위원회
- 홍찬숙. (2018). 노동 4.0인가? 제2 노동세계인가? 노동 4.0의 산업사회 관점 및 그 한계. 경제와 사회, 165-192

(1)

표 1 서울시 영등포구 일대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방향

| 부문 | 대분류 | 계획요소 및 수립방향 |
|------|-----------|---|
| 도시구조 | 공간구조 | 복합용도 권장, 주차시설 집적, 역세권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연계 |
| | 토지이용 | 단지 내 빈터 마련(통풍로 확보) |
| 교통 | 대중교통체계 | 버스노선 정비, 대중교통전용지구(Transit mall) 설치, 대중교통수단 확충, 실시간 대중교통정보(BIS) 제공 |
| | 신교통 수단 | BRT·LRT 노선 확충, 바이오모달트램 도입 |
| | 보행 및 자전거 | 대중교통 환승지에 자전거 주차장 마련, 자전거전용도로 확보 |
| | 교통 시설 | 복합환승센터 구축, 도보·자전거 10분 거리 이내 대중교통센터 설치 |
| 건축 | 에너지절약형 건축 | 자연환기·통풍·채광 시스템 구축, 차양 설치, 태양광 집열판 설치 (태양광 발전) |
| | 에너지 수요 관리 | 구식 지역 냉난방시스템 개선, 자연환기 시스템 구축, 재활용 연료기반 지역 난방시스템 설치 |
|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개발 | 태양광 발전, 지열 이용, 풍력 이용, 바이오매스(바이오에탄올) 활용 |
| | 자원 재활용 | 폐기물 재활용 발전(생활폐기물), 도시 폐열활용 발전(미이용 하수열) |
| | 에너지 절약 | 간판, 보안등, 가로등, 교통신호등 LED 교체, 지표수·오수 분리시스템 구축 |
| 기반시설 | 탄소흡수 | 가로변 녹화, 탄소흡착효과 높은 수종 식재 |
| | 녹색 인프라 | 도로, 보도, 주차장 등의 표면 투수성 포장 |
| | 재해 예방 인프라 | 배수시설 정비, 저영향 개발 기법 적용 |
| 생활 | 커뮤니티 구축 | 기후변화 대응 민간단체 활성화 |
| | 교육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교육 실시, 저탄소 인증 지역설명회 개최 |
| | 운동 | 나눔 장터 활성화, 폐기물 인식 캠페인 추진 |

왕광익 외. (2014). 기후변화 대응 도시 재생 정책과 제 및 전략계획 수립방향. 국토정책 Brief. 462.

**함께 미래를 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50000action@gmail.com